

HEADLINE NEWS

자전거 타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시카고 선정 (미국)

미국 잡지 'Bicycling Magazine'은 최근 미국 내에서 자전거 타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시카고市를 선정하였다. 시카고市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난 10년간 자전거 이용 인구 또한 급증하였다. 최근 새로 통과된 市의 용도지역제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 개발시 자전거 주차공간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카고市는 오는 9월 자전거 주차장 10,000개의 설치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ikers' Tricks & Tip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성인의 숫자는 매년 1백만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타기는 걷기와 수영 다음으로 미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나타났다.

(www.suntimes.com/output/travel/tra-news-bike20addon.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시화된 지역과 교통회랑을 따라 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Compass 성장」 계획 수립 (캘리포니아)
- ②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모형제작산업 창조거점」 신설 (동경)

도시환경

- ③ 도시열섬현상 극복을 위한 물뿌리기 캠페인 시행 (일본)

도시교통

- ④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School Zone' 강화계획 실시 (싱가포르)
- ⑤ 통근열차에서의 폭탄테러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보스턴)
- ⑥ 지하철에서 수상한 물건 발견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 전개 (뉴욕)
- ⑦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추진 (펜실베이니아주 헤리스버그市)
- ⑧ 교통수요관리 전문 온라인 백과사전 출판 (밴쿠버)

사회복지문화

- ⑨ 건물 벽화를 통해 도시 전체를 '도시 갤러리'로 조성 (보스턴)

행재정

- ⑩ 도시재생을 위해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 (오사카)
- ⑪ 수도권 지자체간 광역연계를 위한 사무국 설치 합의 (일본)
- ⑫ 전자정부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e-Gov Alliance" (워싱턴州: 킹 카운티)
- ⑬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전자계획시스템" 도입 (스코틀랜드)

① 도시화된 지역과 교통회랑을 따라 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Compass 성장」 계획 수립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가주 지방정부연합(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인 「컴퍼스 (Compass) 성장」 계획을 최근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미 도시화된 지역과 교통회랑을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가주 지방정부연합’은 6개의 카운티 정부와 카운티 내 수많은 도시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인구는 현재 1천7백만명인데, 2030년에는 2천3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4169&state=5)

②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모형제작산업 창조거점」 신설 (동경)

일본 東京都는 연내에 타마(多摩)지구에 「모형제작산업 창조거점(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都는 ‘중소기업진흥대책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전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타마지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대학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都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都가 타마지구에 「모형제작산업 창조거점(가칭)」을 신설하는 것은,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의 수주 감소와 사업 승계 등 都內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타마지구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센터가 있지만, 都가 다기능의 산업지원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24c3b2404724.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③ 도시열섬현상 극복을 위한 물뿌리기 캠페인 시행 (일본 전역)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 Effect)을 극복하기 위한 물뿌리기 캠페인이 7월부터 일본 전역에서 시작되었다. 「우치미주(Uchimizu)」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올해로 2번째 시행되는 것인데, 2003년에는 약 30만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도시 전역에 물을 뿌린 결과 온도가 1도 내려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들과 일본정부는 올해 약 1백만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3836)

(Daily Yomiuri, 2004. 7. 21)

④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School Zone’ 강화 계획 실시 (싱가포르)

싱가포르 교통당국은 통학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해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도로에서 보다 강화된 ‘School Zone’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우선 초등학교 교문으로부터 약 70m 구간까지는 다른 도로와 재질이 다르고 시인성이 높은 붉은색 도로 포장을 하여, 운전자가 주의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횡단 신호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성급하게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난간을 설치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당국은 2003년에 월 평균 10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자, 이러한 안전 강화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관계당국은 향후 18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이와 같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www.channelnewsasia.com/stories/singaporelocalnews/view/86794/1/.html)

5 통근열차에서의 폭탄테러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보스턴)

최근 미국 보스턴시는 통근열차에서의 폭탄테러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스턴시, 매사추세츠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안전 및 교통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4시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2개 노선에서 동시에 폭발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대처능력 및 승객 수송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안문제를 고려하여 비공개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언론을 의식하지 않고 실제 상황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관계당국은 훈련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일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boston.com/news/local/massachusetts/articles/2004/06/25/drill_simulates_dual_train_bombings/)

6 지하철에서 수상한 물건 발견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 전개 (뉴욕)

미국 뉴욕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혹은 통근열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할 경우 철저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MTA'는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 12월에도 이러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MTA'는 홍보 캠페인의 내용을 담은 4종류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철도 차량 내부에 부착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 외부에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주요 지하철 노선의 승객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23662.htm)

7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추진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Steer It Clear」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사고차량에 의한 2차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치우지 않으면, 당국은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 조사시에도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당국은 주의 주요 도로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유발되는 혼잡비용이 시간당 6~7백만 달러에 이르며, 전체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18%가 사고로 인한 2차사고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www.zwire.com/site/news.cfm?BRD=1306&dept_id=187833&newsid=11817423&PAGE=461&rft=9)

8 교통수요관리 전문 온라인 백과사전 출판 (밴쿠버)

캐나다의 교통전문연구소인 '빅토리아 교통정책 연구소(Victoria Transportation Policy Institute)'는 최근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온라인 백과사전을 출판하였다. 온라인 백과사전에는 교통수요관리의 정의, 평가, 적용방법뿐만 아니라 교통계획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와 용어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주제별로 중요한 연구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어, 교통분야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ww.vtpi.org/tdm/)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9] 건물 벽화를 통해 도시 전체를 ‘도시 갤러리’ 로 조성 (보스턴)

최근 미국 보스턴市에서는 건물 벽화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市의 많은 예술가들이 벽화 동호회(Mural Crew)를 구성하여 市의 건물과 거리를 밝고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市는 조만간 도시의 벽화 관광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市의 벽화 예술가들은 샌프란시스코와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벽화 동호회의 영향을 받아 1990년 초에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市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그룹, 비즈니스 그룹의 후원까지 받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는 600명, 필라델피아에는 2,400명의 벽화 예술가들이 벽화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ww.boston.com/news/local/articles/2004/07/25/the_urban_gallery)

9] 도시재생을 위해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도시재생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기업과 대학의 유치를 통한 지역프로모션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입지 촉진을 위해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市는 우선 로봇기술과 정보통신 등 중점산업분야 사업자의 사업소 건설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거점 형성을 목표로 정비하고 있는 코스모스퀘어 지구 내에서 시유지(市有地)를 구입하여, 이 구역에 사업소와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용지취득비의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외에서 시내로 진출하는 중점산업분야 사업자에게도 사업소 건물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6/month/index.htm)

④ 수도권 지자체간 광역연계를 위한 사무국 설치 합의 (일본)

일본 東京,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카나가와(神奈川)의 1都 3縣지사와 요코하마(横浜), 가와사키(川崎), 치바, 사이타마의 4개 정령지정 도시의 市長으로 구성된 '8都縣市 수뇌회의'는 최근 수도권 공동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광역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도도부현(都道府縣) 회관 내의 東京都 사무소에 두고, 각 자치단체가 1~2인을 임의로 파견하기로 했다. 상설사무국으로의 전환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연계의 첫번째 Task로는, 당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과 국가와 지방의 세금·재정개혁의 대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의 논의 안건은 수뇌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12c3b1204812.html)

④ 전자정부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e-Gov Alliance” (워싱턴주: 킹 카운티)

'미국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는 최근 전자정부의 모범사례로 워싱턴주의 킹(King) 카운티를 소개하고 있다. 킹 카운티는 카운티 내 8개 도시 간의 상호 협력으로 '킹 카운티 도시관리자협회(King County City Managers' Association)'를 결성하고, "전자정부연합(e-Gov Alliance)"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부연합"은 그동안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달랐던 민원이나 건축허가 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류로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서류의 이용은 고객과의 상호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효율적인 자료의 저장과 관리 등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arter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서류를 이용하면 종이서류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우표값, 종이값, 기타 장비값 등을 모두 합하여 3.5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planning.org/egov/2004/may.htm) (www.ecitygov.net/home/default.asp)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전자계획시스템” 도입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전자계획시스템(e-planning system)”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계획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각종 건축허가 및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자계획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계획절차가 투명해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마다 정보화의 단계와 시스템 도입 여건의 차이를 조정하고 “전자계획시스템”을 국가 전역에 도입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오고 있다.

(news.bbc.co.uk/2/hi/uk_news/scotland/3933613.stm)